

광주 하계 U대회 유치 단독 접수

울산시 경합 포기…KOC, 13일 실사

사실상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 가능성

광주시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경합을 벌였던 울산시가 유치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광주가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2013년 하계 U대회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 결과, 당초 유치 의사를 보였던 울산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 광주시만이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하계 U대회 평가실사단(단장 김상우)은 오는 13일 광주시를 방문, 시의 대회 준비 상황 설명을 청취한 뒤 월드컵경기장 등 관련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평가실사단은 실사 내용을 토대로 10월 초 광주의 국내 후보도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광주가 후보도시로 지정 될 경우 같은 달 15일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

에 하계 U대회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가 문광부의 국제 회의 도시 심의를 통과, 사실상 공고 등의 행정절차만을 남겨 둔 만큼 하계 U대회 국내 후보도시 지정에 이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호텔 부족으로 인해 국제행사 유치시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만은 없는 분위기다.

시가 유치 노력을 벌이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는 1천명이 동일한 범위 내에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하계 U대회는 행사 성격상 호텔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제공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국내 후보도시로 지정되면 정·관계, 경제·체육계 인사 등 100여 명으로 범국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하계 U대회는 FISU에서 주최하며, 대회 규모는 FISU 가맹국 170여 개 국 1만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0일 간 육상, 축구 등 15개 종목을 겨루는 스포츠 전선이다. 2013년 대회는 캐나다, 대만, 멕시코, 폴란드, 중국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경련회장단 회동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최용권 삼현기업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조석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이 11일 오후 정기 회장단 회의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연합뉴스

'인터넷 게임' 7세 미만 등급 신설

아토피·천식 질환 상담 콜센터도

지속가능발전위, 어린이 건강 대책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상담과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목표를 골자로 한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따른 미래의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된다.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 했다.

또 12세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을 적용해 어린이에게 게임을 통제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게임종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의 상담과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병원 9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해 질병유발 요인을 연구하고 알레르기 환자용 유우·특수분유 구입비용 지원, 천식예방제 유무·운영 및 저수수 사용 초등학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03년 43건에서 2006년 70건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촌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한다. 우리 농산물 구입시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김승연회장 執猶 … 사회봉사명령

보복폭행 항소심 … 200시간 복지시설 등 봉사활동해야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동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로 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남이 상처를 입은 대로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적 보복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안

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존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대로 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남편도 출산휴가

내년부터 3일간

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 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 별로 일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 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 했다.

/연합뉴스

의료만평

- 김종우



허긴, 연애소설도 소설이죠

사망자도 연금 주는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적발 … 제도개선 요구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6년도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천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단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제외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주민등록 표 데이터베이스를 통괄 관리하는 행자부 조회에 의존해 사망자의 진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혁신도시 이전 韓電 파급효과 극대화

신재생·수소연료전지 특구 조성해야

韓電 이전 전략 용역 보고회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이전하는 한국전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나 혁신도시와 광주 접경지역에 '신재생·수소연료전지 특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만든 수소를 자동차 연료나 전기 생산으로 이용하는 체계"라면서 "세계적으로 수소의 생산, 저장 및 활용이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혁신도시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특구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특구단지가 신설되면 국가차원의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의 실용화 및 보급이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광주문행 : 001-107-228160

◆광주(국)영주일보사

•(062)220-0524·직통:(062)227-9600·FAX:227-9500

부동산 매각 공고

신은캐피탈제설호유문화전문회사(이하, '메도인') 소유 부동산(이하, '메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메도인의 자산관리자인 신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메각을 공고합니다.

1. 메각대상 부동산

소재지 :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62-17 위 지상 건물 중 공유지분 면적 : 87.14㎡ / 건물 : 1,724.26㎡

층 수 : 지상6층, 7층

소재지 : 대구 달서구 두류2동 87-36 위 지상 오피스텔 17층 1701호 면적 : 125.11㎡ / 건물 : 1,748.05㎡

층 수 : 지상7층

2. 일정 일시 : 2007년 9월 27일(목) 오후 2시

3. 일정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

신은캐피탈주식회사 6층 회의실

4. 메각 방법 : 일반경쟁입찰

5. 기타 사항 :

- 입찰서류 등은 당시 홈페이지(www.kdbc.co.kr)를 참조 바랍니다. (9월 17일 당시 홈페이지 개재 예정)

- 공고된 입찰유의서 등을 참조하시어 입찰보증금 및 제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입찰이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시 업무지원팀 부동산 매각담당 (02-6330-0254)으로 문의바랍니다.

2007년 9월 12일

메도인의 자산관리자 신은캐피탈 주식회사

정정 공고

본지 2007년 9월 8일자 4면에 게재된 분할공고(제권자 이의 및 주권제 출금공고) 중 정인산업개발 주식회사를 거친 정인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정정 공고합니다.

◆ 분할 합병 공고

(제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제권자 : 韓電舍
한국전력

대표이사 표순옥

(율) 주식회사 금화전기

전남 광양시 남동면 194-2

대표이사 표순옥

2007년 9월 12일

◆ 감사원 적발 … 제도개선 요구

1. 정정 공고

2. 일정 공고

3. 기타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주인(340101-16488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제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제권자 : 韓電舍
한국전력

대표이사 표순옥

(율) 주식회사 금화전기

전남 광양시 남동면 194-2

대표이사 표순옥

2007년 9월 9일

◆ 감사원 적발 … 제도개선 요구

1